

# 광주FC '아시아 무대' 서 또 통했다

아침 가와사키 원정 1-0승 '2연승'...아사니 페널티킥 성공  
6일 서울과 K리그1 33라운드...3연승으로 7위 사수 나서



광주FC가 '아시아 무대' 활약을 이어 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FC가 6일 오후 3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4 3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31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0-2패를 기록하며 파이널A 탈락이 확정된 광주는 앞선 김전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도 0-2패를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올 시즌 13승 1무 18패를 기록한 광주는 승점 40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하위 인천유나이티드와 승점 8점 차, 10위 대구FC(승점 35)와는 승점 5점 차다. 이번에 홈에서 만나게 되는 8위 서울과는 승점 2점 차에 불과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추가해야 한다.

리그 연패 중이기는 하지만 광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이하 ACLE)에서는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1일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와의 ACLE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원정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아시아를 놀라게 했다.

광주는 지난달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요코하마 마리노스(일본)와의 ACLE '데뷔전'에서 7-3 대승을 거두면서 화제의 팀이 됐다.

원정길에 나섰던 광주는 이번에도 승리를 낚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요코하마전에서 헤트릭을 장식했던 아사니가 이번 가와사키 원정에서도 김진호가 얻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개근생' 가브리엘도 꾸준한 모습으로 광주 공격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앞선 리그 두 경기에서 흔들렸던 수비도 이번 가와사키 원정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수문장' 김경민이 가와사키전에서 4차례 선방을 기록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 수비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김경민은 공격의 시작점이기도 한 만큼 이번 승리는 반전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체력적인 부담을 노출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연달아 실점으로 연결된 수비 실수를 기록했던 정호연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알렸다.

ACLE 연승 기운을 이어 광주는 서울전 3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시즌 개막전에서 서울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고, 6월 맞대결에서도 2-1로 이기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앞서 있지만 서울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서울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마련했고, 개막전 맞대결에서 몸이 덜 풀렸던 리가드도 점점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광주를 위협하고 있다. 14골을 장식하면서 리그 득점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일류첸코도 완벽 봉쇄해야 하는 상대다.

서울 '수비의 핵'으로 떠오른 요르단 국가대표 야잔도 경계 대상이다.

광주는 ACLE와 리그 경기를 연달아 치르면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그만큼 이장호 감독의 '전략'이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극대화 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스플릿 라운드 도입에 앞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가 연패를 끊고 '생존 싸움'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아사니가 1일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페퍼스, 봄은 오지 않는가

컵대회 마지막 경기서 GS칼텍스에 0-3으로 져 조별예선 완패 '봄 배구' 빨간불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4-2025 V리그의 판도를 미리보는 컵대회를 3패로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3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예선 A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21-25 21-25 22-25)패를 당했다.

초반 3득점으로 1세트를 기분 좋게 시작한 페퍼스는 GS의 실바, 와일리의 오픈, 블로킹 성공에도 꾸준히 점수 차를 벌리며 11-4, 7점 차를 만들어냈다.

페퍼스는 장위와 박정아의 6득점과 5득점으로 20점을 먼저 찍었지만, 20-16에서 GS의 연속 득점에 20-20 동점 상황으로 따라잡혔다. 수비가 무너진 페퍼스는 박은서 대신 이예림을 투입했지만 권민지의 오픈 성공과 실바의 백어택에 첫 세트를 내줬다.

1세트 뒷심싸움에서 분위기를 내준 페퍼스는 2세트에서도 GS에 밀렸다. 7-13까지 격차가 벌어진 페퍼스는 이예림·박정아·박경현의 오픈 성공으로 서서히 GS를 추격했다.

페퍼스는 21-23, 2점 차까지 따라잡았지만 GS 아시아쿼터와일리의 속공과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에 당해내지 못하고 2세트도 GS에 넘겨졌다.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페퍼스는 3세트에서도 3-9로 초반 흐름을 내줬지만, 연속 5득점에 이은 이예림의 킥오픈으로 11-10 역전에 성공했다.

권민지의 킥오픈 공격에 이은 하혜진의 블로킹으로 페퍼스가 13-11로 경기 흐름을 바꿨지만, 박정아의 공이 실바에 막히면서 승부는 15-15 원점으로 돌아갔다.

엄지락뒤치락하는 승부가 이어진 끝에 하혜진의 시간차 공격으로 만든 22-22, GS가 실바의 속공과 와일리의 블로킹으로 3세트를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컵대회 마지막 경기에서는 1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다.

지난 두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2-3패, 한국도로공사에 1-3패를 당한 페퍼스는 이번 경기로 컵대회 조별예선 3전 전패를 기록했다.

새로운 감독과 함께 보강된 전력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페퍼스의 도전은 아쉽게 막을 내렸다. 이날 박정아가 14득점을 올렸고 아시아쿼터 장위가 10득점, 이예림 9득점, 하혜진 7득점을 기록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3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예선 A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페퍼스 장위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KOVO 제공>

했다. 외국인선수 트리아아웃 전체 1순위로 선발된 자비지는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23득점,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20득점을 따냈지만 이날 경기

에서는 1-2세트만 나와 4득점에 그쳤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22일 오후 2시 2024-2025 시즌 V리그 첫 승부로 도로공사를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한국 U-17 여자 대표팀 '어게인 2010'

광양여고 범예주·김한아·신윤아 월드컵 출전... 14년만에 우승 도전

광양여고의 범예주, 김한아, 신윤아가 한국 U-17 여자 월드컵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한국시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에 출전할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국 프로리그 엔젤시티FC 소속이자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 중인 공격수 케이시 유진 페어를 비롯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24 AFC 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도 다수 포함됐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U-17 아시안컵에서 3위를 차지하며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2024 FIFA U-17 여자 월드컵은 16개 국가가 4개 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8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조추첨 결과 강팀이 모인 B조에 속해 17일 콜롬비아, 20일 스페인, 23일 미국과 맞붙는다.

2018-2022년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은 2014년 준우승, 2010년과 2016년 3위를 차지했다. 콜롬비아는 2018년 대회 준우승팀이고 미국은 2008년 대회 준우승을 경험한 팀이다.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한다.

김은정 감독은 "월드컵에 쉬운 팀은 없지만 6년 만에 U-17 월드컵 본선에 복귀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했다. 우리가 준비한 게임 플랜을 명확히 펼칠 수 있다면 좋은 결과 이상으로 우리 선수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표팀은 4일 대회가 열리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

◇2024 FIFA U-17 여자 월드컵 최종 명단(21명)

▲GK=우수민(포항여전고) 정유정(울산현대고) 정해림(충주예성여고) ▲DF=김한아 신윤아(이상 광양여고) 노시은 신다인 신성희(이상 울산현대고) 박지유(충주예성여고) 정하윤(경남로봇고) ▲MF=범예주(광양여고) 김예은(남사랑 류지해 백지은(이상 울산현대고) 서민정(경남로봇고) 양지민 임예지(이상 포항여전고) 김민서(인천가정여중) ▲FW=케이시 유진 페어(엔젤시티FC) 한국의희(울산현대청운중)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햄스트링 부상 손흥민 유로파리그 원정 불참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손흥민이 토트넘(잉글랜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회복 중인 걸로 확인됐다.

토트넘을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 2024-2025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 가용 자원을 설명하면서 손흥민을 부상자로 분류했다.

영국 풋볼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두 드루구신은 (이전에) 경고를 받아 뭘 수 없고, 손흥민은 회복을 위해 런던에 있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6일 열린 가라바흐(아제르

바이잔)와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71분을 소화한 시점에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다.

후반 23분 3-0을 만드는 도미니 솔란케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강슛을 시도한 직후 손흥민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주저앉은 채 벤치를 바라봤고, 결국 교체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월 2연전에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10월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포함했으나 "물론 당장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인과 클럽이 얘기했다.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